



癌연구와 農藥의 정당성

농약노출, 일반대중 암발생에 영향 없어

과

학자로 구성된 한 'Panel' 은 농약노출이 일반대중의 암발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과일 및 채소의 소비증가에 따른 농약잔류와 암발생 위험 관계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암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4년에 구성된 캐나다 국립암연구소 암방지 자문위원회(ACOCC) 특별 panel의 검토 결과이며 지난해 11월 미국의 암학회지인 'Cancer' 에 발표된 내용이다.

1994년 농약노출이 암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된 이 'Panel' 에서는 작물보호물질이나 잔디·정원용 농약이 암의 주원인이라는 가정에 대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 잔류에 의한 일반 대중의 농약노출은 극히 적었으며 정부가 정한 안전수준 이하라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은 신체 여러부위에서의 암발생 위험을 줄여준다고 예상한 많은 보고서와 의견을 같이 했다.

과학자들은 질 좋은 식품생산과 농산물값의 저렴화, 암위험을 줄이기 위한 과일 및 채소의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한 농약사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Panel' 은 또 Phenoxy계 제초제(2,4-D)는 농민과 농약사용자의 Non-Hodgkins lymphoma 발생 증가와 관련되어 왔으나 이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결론짓고 있으며 몇몇 연구는 DDT와 같은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유방암과 연관짓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 가정과 거리가 멀었다.

'Panel' 은 또 농약노출과 암 특히 Phenoxy계 제초제 이외의 농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고 더 많은 연구를 요구하였다.

이 'Panel' 이 소집된 주된 이유는 캐나다 암학회가 이 분야에

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만큼 암발생 위험이 농약으로부터 오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Panel' 은 암감소를 위해서는 담배의 감소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순위를 조정하였지만 농약에 대해선 순위조정을 권하지 않았다.

한편 모든 암중 2%정도가 합성농약때문이라는 1981년의 평가에 대해 순위조정을 위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한 반면 담배와 식사는 각각 30%, 35%의 암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찾아냈다.

미국 암학회장인 Clark 박사는 암발생 위험에 대해 일반대중을 이해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Clark 박사는 또 위험이란 그것이 외부에서 올때 더 크게 보일 듯이 담배와 편식에서 오는 문제는 농약의 위험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담배와 편식에서 오는 문제는 흔히 농약노출에서 오는 문제에 의해 가려져 왔음을 지적했다. **농약정보**